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16개 국내은행의 구속성 행위(꺾기) 적발

- 금감원은 '09.4.28~5.22 기간 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비용을 가중시키는 불건전 영업행위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함.
 - 그 간 금융당국의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(꺾기)를 취하고 있었으며, 적발 건수는 총 2,231건(430억원)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불건전 구속성 행위의 형태별에 있어서는 대출고객의 예·적금에 대해 임의로 지급정지를 전산 등록하는 등 인출 및 해약 제한 행위가 1,797건(391억원)으로 전체 약 80.5%(90.9%)를 차지하고 있음.
 - 또한, 대출 실행일 전후에 차주의 자발적인 가입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불건전 행위가 434건(39억원)으로 나타남.
- 금융상품별로는 예·적금의 구속성 행위가 1,963건(88.0%)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이어 펀드(241건, 10.8%), 보험(25건, 1.1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법규 위반 행위자(805명)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·심의 절차 등을 거쳐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, 구속성 예금으로 적출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*를 조치할 계획임.
 - * 예대상계 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를 지급
- 또한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및 중소기업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.
 - 추진 제도로는 차주의 자발적 금융상품 가입 확인서 제도 폐지, 보상에금제도의 활성화, 구속성 행위 규제 기준의 명확화,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제도 보완 등을 개선할 계획임.

(은행의 구속성 행위(꺾기) 검사결과 및 근절대책, 금융감독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, 7/1)